

폭우 피해 되풀이 무안 양곡지구 배수개선사업 ‘하세월’

무안군 지난 5월 공사·감리·자재 등 20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자재만 발주해놓고 현장사무실도 없고 사업용지 매입도 뒷집

무안 운남면 양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막겠다며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사무실도 없고 사업용지 한 필지도 매입하지 않은 채 사업과 자재만 발주하는 등 감독 부실과 현장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무안 운남면 양곡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겪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305mm의 집중폭우가 쏟아졌고 2주 뒤인 8월 3일부터 이틀간 또 다시 288.5mm(시간당 118.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양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20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운남면 연리 일원 263ha를 대상으로 배수장 4개소, 배수로 2개소 설치와 배수로 6.2km 신설·확장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2지구(성내리 일원 65ha) 정비사업에 67억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지난 5월 해당 사업을 긴급 발주해, 6월 12일 A 건설사와 86억 7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선금금 15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감리·자재·기계 등 22개 업체와 총 120여억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지만 착공 5개월이 지나도록 현장 사무실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군은 집중호우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로 신설, 배수장 확충 등 긴급 대책을 내세웠지만, 현장에는 장비도 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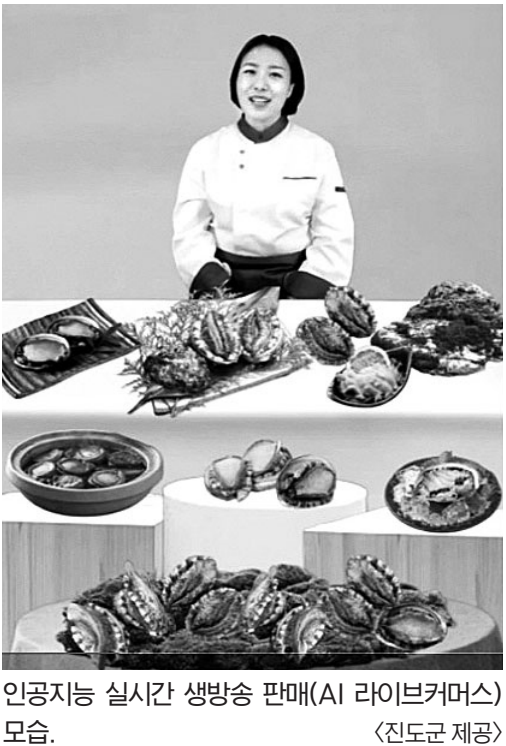
지역 한 주민은 “수백억짜리 국비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정작 현장은 조용하다”라며 “현장 사무실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 쏟아질 때마다 물에 잠기는데, 정부 돈만 내려오고 사업은 제자리”라며 “행정이 보여주 기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행정 절차와 설계 보완이 진행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현장 관리를 강화해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지난 8월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를 입은 운남면 연리·성내리 들녘.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AI 라이브커머스) 모습. <진도군 제공>

진도군, AI 기반 라이브커머스 국내 첫 도입

전북 등 특산물 판매 서비스
24시간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

진도군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특산물 판매서비스를 가동해 지역 농수산물의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진도군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상생협약 사업인 ‘K-먹거리 산업과 프로젝트’로 지역 통합 브랜드 ‘진도이츠(Jindo eats)’를 선보이고 인공지능 실시간 생방송 판매(AI 라이브커머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쥘스마트알뜰장터는 진도 농수산물을 24시간 판매할 수 있는 AI 기반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했다. AI 판매자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마치 사람처럼 소통하며, 진도의 사투리를 활용해

지역적 특색까지 담아냈다.

이와 함께 물류거점센터(MFC)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물류·정산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형 유통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진도이츠 네이비스토어관’과 AI 라이브커머스를 연계,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판매가 24시간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구조 혁신을 통해 지역 농어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월 30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디지털 물류체계와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판매 방식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이번 시도가 진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무안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본격화

작년 매입 물량 대비 31% 증가

무안군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건조벼, 산물벼, 가루쌀을 포함해 2024년산 당초 배정량보다 31% 증가한 8756t을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확기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물벼 매입 물량을 전년 대비 1472t 확대했다.

산물벼는 10월 중순, 가루쌀은 10월 말, 건조벼는 11월 초부터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벼와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물량은 벼 재배면적 조정 실적과 전한 실적 점검 등을 거쳐 별도 추가 배

정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전국 단일가격으로 적용된다. 매입 직후 중간 정산금 4만원이 지급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 예정이다.

이재광 무안군 농업정책과장은 “매입 품종(새청무·신동진)이 아닌 품종을 출하할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가 제한되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종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모든 농가와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매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어울림도서관 ‘음악으로 듣는 가을’ 음악회

25일 케데헌 골든 등 12곡 연주

목포어울림도서관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5일 ‘어울림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도서관 리딩스테이에서 열리며, 음악 공연을 통해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알리고 책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공연은 목포 청년 현악단 ‘라라상상발’이 준비한 ‘음악으로 듣는 가을동화’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현악기와 피아노 선율로 들려주며 가을 정취를 담은 클래식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 곡, 케이팝 데몬헌터

스의 골든, 소다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0월 15일부터 22일(수)까지 목포시통합도서관 누리집(www.mokpolib.or.kr)을 통해 무료로 가능하다.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도서관이 청년들에게 꿈을 키워나가는 문화예술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한의학 몸 업(UP), 마음 업(UP) 청춘교실’ 프로그램 운영 모습.

영암군, 한의학 청춘교실 참여자 선착순 모집

40~64세 30명 24일까지

영암군이 ‘한의학 몸 업(UP), 마음 업(UP) 청춘교실’ 프로그램 참여할 영암군민(40~64세) 30명을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과 갱년기 극복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영암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 8회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혈압·혈당 측정, 우울 척도 검사, 갱년기 지수 설문 등 기초검사와 ▲갱년기 극복 건강관리 교육 ▲근감소증 및 요실금 예방 ▲기공체

조 및 명상 ▲도자기·라탄 공예 및 꽃바구니 원예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공동보건 한의사와 전문 강사진이 함께 해 건강관리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영암군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전화 신청 또는 정보무니(QR) 코드로 할 수 있다.

박수희 영암군 보건소장은 “이번 청춘교실은 중·장년층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며 “건강 생활을 실천할 영암군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2관왕’

복지부 장관 표창·우수 지자체
‘건강이 샘솟는 1004섬’ 등 호평

신안군이 보건복지부 주최 ‘2025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관왕’을 차지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성과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개인 발전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 탁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보건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중 2차년도(2024년) 시행 결과와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안군은 ‘건강이 샘솟는 1004섬 신안’을 비전으로 삼아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량 제고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취약계층



‘2025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신안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건강 안전망 확보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4개년 계획을 이행 중이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온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와 군의 적극적인 보건정책 추진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영광군 참여 농가 17일까지 모집

영광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은 신청 접수 후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 발급 인정서 신청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들은 E-8 비자 자격으로 입국해 최대 8개월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더불어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휴게 시간 보장 등 법적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광군은 재입국 계절근로자의 출국 항공료 지원,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해남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부군수 단장 전담반 구성 전략회의

해남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시범 실시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전국 69곳의 군(郡)단위 지자체 중 6개 지역을 선정해 내년 실시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민 삶의 안정, 공동체 복원, 순환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이 사업 유치에 성공할 경우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게 되어 2년간 2246억원이 지역에서 순순환하게 된다.

해남군은 시범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추석 연휴에도 기획실, 미래공동체과 등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에도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도입 필요성, 재원 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매매김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